

것 같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을 할 수 있게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5월 드디어 즐거운 손님들이 서안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얼굴에 살아 숨쉬는 산악인 처럼 단단한 체력의 박목사님 부부와 도시에 하얀 피부를 가진 김목사님 부부가 10개월만에 자리에 앉아서 검사 데이터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암이 소실이 된 것은 아니지만 원발암에 유방 쪽에는 없어지고, 뼈에 작은 형태로만 보일 뿐이었습

니다.“하하하하하……아직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말기에서 이 정도 회복을 했으니, 이제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는 삶,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런 삶을 산속에서 살아가면 어떤 생활이 될지 모르나 다음을 안 하겠으니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리라.” “박목사님…산속 생활은 어떤가요? 한국에 있는 김현원 교수님에게 제게 연락을 놓겠습니다”

저는 박목사님 친한 아이와 형을 만났습니다. 박목사님의 부부가 10개월 전의 저와 함께 산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자연을 벗삼아 돌아다녔더니….자연은 어머니와 같은 따스함과 생명력을 담아 주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상의해서 내년까지 1년을 더 있기로 했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새로운 유기농법을 주민들과 의논하면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채소와 산에 나물들을 심양과 데렌쪽에 한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동양에서 살면서 건강을 지키는 한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영숙씨는 어떤가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김현원 교수님의 책들을 모두 보고 추천해주신 책들을 모두 보고 나서 암과 건강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성경까지 내 마음에 담아서 이제는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하여 하루가 늘 즐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교수님 책을 독해 하다 보니 한국말을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저에게는 그 동안 약점 이었던 한국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을 부쳐주신 박목사님에게 감사 드리고 한국에 계시는 김현원 교수님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한국에 가면 꼭 김현원 교수님에게